

기아차 “내년 300만대 생산·판매”

광주공장 카렌스·쏘울 풀체인지 출시 올 상반기 매출 24조 사상 최대 실적

기아자동차가 해외 판매에 힘입어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내년에는 광주공장 등 기존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300만대 생산·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광주공장은 내년엔 카렌스와 쏘울 풀체인지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아차는 지난 27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컨퍼런스룸으로 진행된 기업 설명회(IR)를 열고 2012년도 상반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기아차는 올 상반기 매출액 24조 3409억원, 영업이익 2조3397억원, 당기순이익 2조297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기아차는 상반기 주요 차종의 판매 호조와 브랜드 이미지 상승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39만4852대를 판매했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인 271만대 생산·판매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K3와 K7 페이스리프트 출시가 남아 있고 내년에는 카렌스와 쏘울 풀체인지 모델을 출시해 균형있는 라인업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아 신차 K3 “아반떼 잡는다”

외관 공개...역동적 디자인 돋보여

기아자동차는 29일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준중형 신차 ‘K3’(사진)의 외관을 전면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K3’는 ‘역동적 근육미(Dynamic Muscularity)’를 콘셉트로, 조각을 빚은 듯한 세련된 스타일과 역동적인 느낌, 전체적인 균형감을 갖췄다.

‘K3’ 전면부는 볼륨감을 살린 패밀리 룩 라디에이터 그릴, LED 헤드램프, 날개를 형상화한 범퍼 하단부 등으로 당당한 느낌을 낸다. 측면부는 앞유리 하단을 앞으로 당겨 날렵한 쿠페의 느낌을 주고, 후면부는 입체감이 느껴지는 리어램프 디자인과 간결한 면 처리로 고급스러움을 구현했다.

기아차는 지난 23일 렌더링 공개에 맞춰 참여자 수에 따라 월-후면-전면 등 외관을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K3 LIKE Opening’ 페이스북 이벤트를 진행해왔다. 이 행사는 신차 외관 공개를 SNS와 연계한 국내 최초의 시도로 주목받았다. 특히 일주일 만에 목표치를 달성해 이날 전체 외관을 공개하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향토기업 화인코리아 살리자

지역국회의원 18명 ‘희생 개시 신청’ 탄원서 경실련도 “대기업 사조, 편법인수 중단” 촉구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 편법 인수 시도’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비난했다.

29일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배기운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은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에 ‘화인코리아 희생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해 탄원서를 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탄원서에서 “대기업 사조그룹이 중소기업을 강탈할 목적으로 일부 금융기관에게 담보채권을 사들이고, 주요 공장과 시설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등 희생절차 개시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

다”며 “이는 매우 부도덕한 일로, 중소기업의 동등성장 정책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어 “특정 대기업의 방해로 화인코리아가 희생절차를 개시하지 못하고 파산한다면 채권자 피해는 물론 수백명의 종업원과 그 가족, 300여 사육능가, 500여 협력업체가 도산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화인코리아가 지역사회의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희생의 기회를 달라”고 건의했다.

경실련도 최근 성명서를 낸데 이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 적대적 인수합병(M&A)은 위장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의 전형”이라며 “사조그룹은 애드윈플러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몰래 구입해 알짜 중소기업을 탈취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사조그룹은 중소기업 탈취행위를 중단하고 초기에 화인코리아의 회생인가에 동의했던 것을 상회해 화인인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재판부에 우수 중소기업이 할애했던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공정하고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노조 전면파업 만도 직장폐쇄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만도(회장 정동원) 노조가 지난 27일 집단협 협상 결렬을 이유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이 곧바로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로 맞섰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인 정인영 회장이 1962년 설립한 현대양행이 전신인 만도는 자동차 제어장치, 조향장치 등을 생산해 국내외 완성차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종업원 수는 4400여명이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국내 기준 3조 4000억원, 글로벌 연결기준으로 5조 3000억원이다.

사측의 이번 조치에 맞서 만도 노조가 파업을 장기화할 경우 완성차업체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등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만도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사측의 이번 조치에 반발해 산하 지부를 대거 동원해 연대 투쟁에 나설 경우 자칫하면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메가톤급 파장을 끼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측은 직장폐쇄 결정과 관련해 “부분 파업을 벌여오던 만도 지부는 25일자 노조 소식지에서 장기 투쟁을 예고했고 27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며 “조합원들을 생산현장에서 배제하고 사무직 인력으로 생산에 나서 결실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남약 유탄유블레스 900’ 인기 소형 오피스텔 895실 15대1 청약경쟁률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 남약신도시에 짓는 소형 오피스텔 ‘남약 유탄유블레스 900’(사진)이 인기리에 분양 중이다.

(주)유탄엔지니어링은 29일 남약신도시 4-5-6블록에 공급하는 소형 오피스텔 ‘남약 유탄유블레스 900’의 청약에 마감한 결과, 최고 15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전남도청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소비자를 배려한 꼼꼼한 제품력이 수요자들을 사로잡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약 유탄유블레스 900’은 지하 2층~지상 18층, 전용면적 28㎡(8.54평) 827실, 34㎡(10.5평) 17실, 48㎡(14.6평) 51실 등 총 895실 규모다.

이 오피스텔은 조식은 물론 코인세탁실, 피트니스센터, 점단방

법시스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지던스형으로, 오피스텔의 고급화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청·경찰청·교육청 등 공공서 밀집지역으로 임대 잠재 수요가 8만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임대 격차없는 최고의 입지다. 또 초기투자금액은 낮추면서 은행금리의 약 3배에 달하는 연 12~16%대의 임대 수익률이 예상된다.

특히, 설계에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했다. 당초 원룸으로 설계됐던 A타입의 경우 수요자들의 의견에 따라 거실과 침실을 분리 투룸형으로 전격 변경한 것이다.

투룸형 C타입은 이미 분양 완료됐고, 현재는 잔여분량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문의 061-285-8384.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8월 지역중소 경기전망 1년새 최악 SBHI 81.1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경기전망 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하며, 최근 1년 사이 경기가 최악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지역 중소기업 107곳을 대상으로 ‘2012년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81.1로 전달에 비해 1.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 것으로 유럽 재정위기, 자동차·조선 수출 감소 등 외적 요인과 더불어 휴가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국내 건설경기 및 내수 위축 등의 내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전망지수는 5월 85.5를 기점으로 6월 84.8, 7월 82.6, 8월 81.1 등으로 하락했다. 지수가 100이상이면 호

전, 100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특히 광주의 경우 79.8로 70선으로 내려앉았다.

항목별로는 생산(84.9→82.0), 내수(79.8→79.6), 수출(93.1→82.4),경상이익(79.3→78.6), 자금사정(84.0→81.3), 원자재조달사정(96.1→91.3)은 전달대비 모두 하락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로또복권 (제50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6 14 22 26 43 44	31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443,236,959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74,650,188
3 5개 숫자 일치	1,672,995
4 4개 숫자 일치	50,000
5 3개 숫자 일치	5,000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옹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주소: D) 대산프리모

大山프리모가발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묘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